

7월19일(월)/로마서4:1~25 (2)

제목: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나?

유대인은 할례에 매여 있어서 바울이 전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도무지 받아드리지 않고 오직 할례에 의해서만 선민이 된다고 믿었다.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9~10절).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 할례를 받았는가의 문제였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었다. 그 답은 무할례시였다(10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15장6절이었고 17장10절에 가서야 할례를 받았다.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14년 후에 가서야 할례를 받았다. 이 아브라함의 예는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 할례는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을 인치는 역할만 한 것이다(11절). 유대인은 태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것은 그 민족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믿음은 개별적인 것이다. 인격적인 것이다. 자기 가족 중에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해서, 그 혈족, 그 전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7월20일(화)/로마서4:1~25 (3)

제목: 의인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18절). 한마디로 그는 불가능 한 것을 믿었다. 그는 자기 몸과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19절). 생명은 살아 있지만 생식기능은 관해서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었던 생식 기능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21절).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22절).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의를 주시기 위함이다(23절).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많은 의인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의롭다하시면 의로운 것이 된다. 나 스스로가 의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기 된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의인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자로 키우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 해매시지 않는다. 그분은 자신이 사랑할만한 자를 직접 창조하신다.

7월21일(수)/로마서5:1~11 (1)

제목: 크리스찬은 뚝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화평을 누린다(1절).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다. ‘누린다’는 말은 ‘즐긴다’는 뜻이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항상 화평을 즐긴다. 그리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은 자기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2절). 그리고 화평을 즐기는 사람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불화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비틀어져 죽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화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창조하는가? 소망을 창조한다(4절). 화평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현재에 붙들려서 현재 밖에 못본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화평을 즐기는 사람은 환난이 오더라도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꿰뚫어 안다. 어떤 결과인가?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그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다. 즐거워하는 이유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이다. 그 환란이 자기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화평을 즐기는 사람의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3~4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항상 뚝심있고 담대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7월22일(목)/로마서5:1~11 (2)

제목: 하나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연약할 때” (6절)이다. 연약할 때는 유치할 때를 가리킨다. “유치하다”는 말을 “이해 못하다”는 말이다. 원래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만이 시절에 받는 것이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죄인되었을 때”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원수되었을 때”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죄인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도 죄인이 된다. 죄인을 사랑하면 그 죄인 된 책임을 같이 지고 죄인 된 저주도 같이 당해야 한다. 같이 당할 마음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자신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죄인 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 받으셨다.

7월23일(금)/로마서5:12~21

제목: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예수께서 단 한번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속죄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아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아담을 예로 들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망했다(12절, 17절, 19절) 한 사람의 실수가 인류에게 파급되었다. 이것은 죄의 유전성과 왕권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해서 인류는 죄에게 자유를 빼앗기며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처럼 아담은 죄의 모형이었다(14절).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 전체에 죄가 왕 노릇 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 노릇하게 되었다(15절, 16절, 19절) 단 한 사람으로 인류가 망했고 또 단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망하기에 족하였고 예수 한 사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죄의 파급성이 컸지만 은혜의 파급성은 더 컸다(20절). 아담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덮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죄 때문에 고생했는가? 그러나 은혜에 충만이 젖어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서 빠져나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